

특집논문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사 독립운동

: 의료활동 유적의 위치 고증

신규환*

- I. 머리말
- II.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설립과 활동
- III. 의사독립운동가들의 개업의 활동
- IV. 맺음말

I. 머리말

1919년 4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등에서 활동했던 의사들은 8명이다. 세브란스 출신이 6명(주현측, 신창희, 곽병규, 정영준, 김창세, 신현창), 시카고대 출신 1명(이희경), 경성의전 출신 1명(나창현) 등이다. 이들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등에서 활약하면서 개업의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개업의 활동은 이국땅에서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일환이기도 했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했다. 의사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의료활동을 하지 않고 독립운동에만 주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영삼(경성의전), 신건식(항저우 의약전문학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학과 연구부교수, 동아시아의학사 전공

임의탁(상하이 동제의학원), 이범교(대구제중원), 서재필(컬럼비아의과대학) 등이 그들이 다. 그밖에 의학생 신분으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유상규, 이의경(이상 경성의전), 서영완(세브란스의전) 등이 있으나 이들은 의사자격을 갖추지 못해 직접적인 의료활동은 할 수 없었다.¹⁾

1920년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의료활동을 병행했던 8명의 의사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는데,²⁾ 이들의 의료활동과 활동장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역사연구에서 장소성(또는 위치성)에 주목하는 것은 장소성이야말로 행위자의 역사적 행위의 인과관계와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가 의사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데 치중했다면, 이 연구는 장소성에 기초하여 그 역사적 행위가 어떤 배경에서 실천되었는지 더 깊게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임시정부의 공간적 기초인 상하이는 1920년대 이미 ‘동방의 진주’ 혹은 ‘동방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 도시였으며, 엄청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상하이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옛 모습을 많이 상실했고, 도로명, 주소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위치 고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고는 당시 신문광고, 진료기록부, 일본외무성 첩보보고 등을 통해 의사독립운동가들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상하이의 역사지도 등을 참고하여 그들의 활동공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³⁾ 이를 통해 의사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공간과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설립과 활동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후, 임시정부는 대한적십자회 설립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한적십자회의 활동은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으며, 상하이 거주 주민들의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1) 박운형·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곤, 「일제시기 한국 의사들의 독립운동」, 『의사학』 17-2, (2008. 12.).
 2) 신규환, 「상하이로 간 6인의 의사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21-1, (2018. 6.).
 3) 본고에서 가장 많은 참고가 되었던 역사지도는 童世亨 編, 『上海法國舊租界分圖』(上海: 商務印書館, 1917)와 『上海市行號路圖錄』(上下冊, 1947-1949년) 등이다. 전자는 王榮華 主編, 『上海大辭典』 上·中·下, (上海辭書出版社, 2007)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고, 후자는 承載·吳健熙 編選, 『老上海百業指南: 道路機構廠商住宅分佈圖(增訂版)』(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6)에 실려 있다.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한적십자사가 전시 및 재난에 대비한 구호조직이기 때문에, 독립 전쟁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목표도 있었다.⁴⁾ 1919년 7월 13일, 안창호(安昌浩: 1878-1938)는 임시정부 내무부 총장 명의(내무부령 제62호)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을 인가하였다. 안창호와 더불어 이희경(李喜敬: 1890-1941)은 대한적십자회 회장으로서 창설을 주도하였다. 이희경은 평안남도 순천 출생으로 1915년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임시정부 수립 후 임시의정원 평안도 의원을 지냈으며, 대한적십자회 회장, 임시정부 군무위원장, 임시회계위원, 외교위원, 외무차장 겸 외무총장 대리 등을 역임했다.⁵⁾

대한적십자사 설립 이후, 안창호와 이희경 등은 평시에는 한인들의 건강과 위생을 돌보고, 전시에는 전상자를 간호할 수 있는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준비하고자 했다. 1920년 1월 31일, 적십자간호원양성소(赤十字看護員養成所)가 설립되었고, 그 위치는 프랑스조계 내 대한적십자사 총사무소였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 1873-1935)는 개학식에 참석하여 “이번에 개설된 간호원학교가 많은 간호원을 양성하여 독립 투쟁시에 유감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며,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했다.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교육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매주 18시간의 수업을 받도록 했다. 수업내용은 간호학부터 의학과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응급상황에서 간호원이 의사를 대신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간호학생들은 김창세가 근무하던 중국홍십자회총의원(中國紅十字會總醫院) 등지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었다. 간호학생들은 대한적십자사 총사무소 등지에서 동포들의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적십자간호원양성소 제1기 입학생 중에는 남자 4명, 여자 1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연실, 김원경, 이경신, 이화숙, 오남희, 김순애, 이봉순, 김현숙, 이매리 등 9명의 여성만이 졸업할 수 있었다.⁶⁾ 그나마도 9명의 제1기 졸업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대한적십자사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적십자간호원양성소를 운영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신입생을 선발하기도 어려웠다. 더욱이 어렵게 구성된 교수진들도 각자의 행로를 따라 만주·시베리아·미국 등지로 떠나게 되면서 교수진마저 해체되었다. 간호원양성을 대

4) 신규환, 「상하이로 간 6인의 의사들」.

5) 「증인 李喜敬 신문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中國地域獨立運動 裁判記錄 4』 4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6) 「상해에 있는 대한인 적십자회」, 『신한민보』(1920. 4. 16.), 1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서울: 서울신문사, 1977), 93-94.

신하여 대한적십자회는 구제회를 조직하였고 의연금과 구호물품 등을 기증받아 동포들의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진력했다.⁷⁾

적십자간호원양성소 제1기 졸업생 중 김연실, 김원경, 이화숙, 오남희, 김순애, 이봉순 등은 모두 1919년 4월 결성된 상하이 대한애국부인회(회장 김순애) 소속이었다.⁸⁾ 대한애국부인회 간부였던 김순애, 이화숙, 김원경, 이봉순 등은 '대한적십자회 재건선언문'에 상하이 대한적십자사 회원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대한적십자사 재건 시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애국부인회의 설립 목적이 독립운동 자금모집과 지원, 독립운동 단체의 연락 및 홍보, 적십자사 활동 및 간호법 연습 등이었기 때문에, 적십자간호원양성소 훈련은 대한애국부인회의 설립 취지와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훈련받은 간호업무를 현실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김원경, 김순애 등은 독립운동가 남편과 결혼하여 부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고, 김연실, 이봉순 등은 임시정부 침체기에 상하이를 떠나 미국에 건너갔고, 미주 대한여자에 국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지속하였을 뿐이었다. 이 중 김연실은 상하이에 오기 전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졸업생이었고, 이봉순은 미국에 건너가서 간호사가 되기도 했다.⁹⁾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교수진으로는 곽병규, 정영준, 김창세 등이 활약했다.¹⁰⁾ 이들은 모두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졸업생들로 곽병규가 1913년, 정영준이 1915년, 김창세가 1916년에 세브란스를 졸업했다.¹¹⁾ 이들 중 적십자간호원양성소 설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김창세(金昌世: 1893-1934)였다. 그는 안창호의 손아래 동서로, 안창호가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으로서 위생행정을 총괄하면서 대한적십자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창호를 도와 대한적십자회 산하 적십자간호원양성소 설립과 운영 등에 적극 관여하고 있었다.¹²⁾ 김창세는 당시 세브란스연합의학교를 졸업하고, 1918-1920

7) 신규환, 「상하이로 간 6인의 의사들」.

8) 1919년 9월 대한애국부인회 총회에서 김순애의 뒤를 이어 이화숙이 회장에 선출되었다. 회장 이화숙, 부회장 김원경, 총무 이선실.

9) 김성은, 「상해 임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여성과 역사』 29, (2018), 293-314.

10) 「赤十字看護員養成所의 개학」, 『獨立新聞』(1920. 2. 7.); 『대한적십자가70년사』, 94에서 김성근(金聲根: 1892-1947)을 적십자간호원양성소 의사로 설명하고 있으나, 김성근은 폭탄전문가로 의사는 아니었다.

11) 1886년 제중원의학당이 개교했으나,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다. 1900년 다시 개교한 제중원의학당은 1904년 세브란스병원 개원 이후 1908년 6월 세브란스병원의학교 명의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13년에 세브란스연합의학교, 1917년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이하 학교명칭은 세브란스 혹은 세브란스의전으로 통일하였다.

12)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의사학』 15-2, (2006. 12.), 213; 신규환, 「식민지 지식인의 초상: 김창세와 상하이 코스모폴리탄의 길」, 『문화와역사』 23, (2012. 5.); 신규환, 「상하이로

년까지 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상하이 중국홍십자회총의원(中國紅十字會總醫院)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곽병규(郭柄奎: 1892-1965)는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졸업(제3회)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조선기독교청년연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3·1 운동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결집됨에 따라 곽병규 역시 상하이로 잠입했다. 임시정부 산하 적십자간호원양성소가 출범함에 따라 곽병규는 교수진으로 참여하였으며, 얼마 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되돌아가 러시아 조선인기독교청년회 회장, 시베리아 조선인교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속했다.¹³⁾

정영준(鄭永俊: 1878-1923)은 1915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졸업 후 베이징과 평톈 등지에서 천화의원(天和醫院) 등을 운영하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이주하였다. 1919년 그는 상하이에서 대한인거류민단의 단원으로 활동했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정영준은 임시의정원 경기도 의원을 지냈으며,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 회원 등으로 활동했다. 1921년 5월,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고에 따르면, 정영준은 이동녕, 이시영 계파의 일원으로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일파로 분석되었다.¹⁴⁾ 그는 무장투쟁에 필요한 전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진으로 참여하였지만, 무장독립운동 노선이 지지 부진해지자, 얼마 후 만주로 되돌아갔다.¹⁵⁾

적십자간호원양성소는 프랑스조계 내 대한적십자회 총사무소에 설치되었는데, 상하이 장빈루(長濱路) 아이런리(愛仁里) 39호에 두었다.¹⁶⁾ 장빈루는 현재의 옌안중루(延安中路)에 해당하는 곳인데, 현재 아이런리라는 지명은 찾을 수 없다. 장빈루는 1940년대 중정중루(中正中路)였고, 지도상으로 아이런리는 중정중루 1079농弄 안에 위치한다.¹⁷⁾ 현주소로는 옌안중루 1111호 옌안호텔[延安飯店]의 왼쪽이자 옌안중루 1059호 대어중식당[大漁中國菜] 뒷편으로 추정된다.

간 6인의 의사들」.

13)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참고. <http://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14)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 3: 高警 제13028호, 國外情報: 僭稱上海假政府 幹部의 黨派別」(1921. 5. 10.),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5) 신규환, 「상하이로 간 6인의 의사들」.

16)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 77-78.

17) 承載·吳健熙 編選, 『老上海百業指南: 道路機構廠商住宅分布圖(增訂版)』(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6), 下冊二,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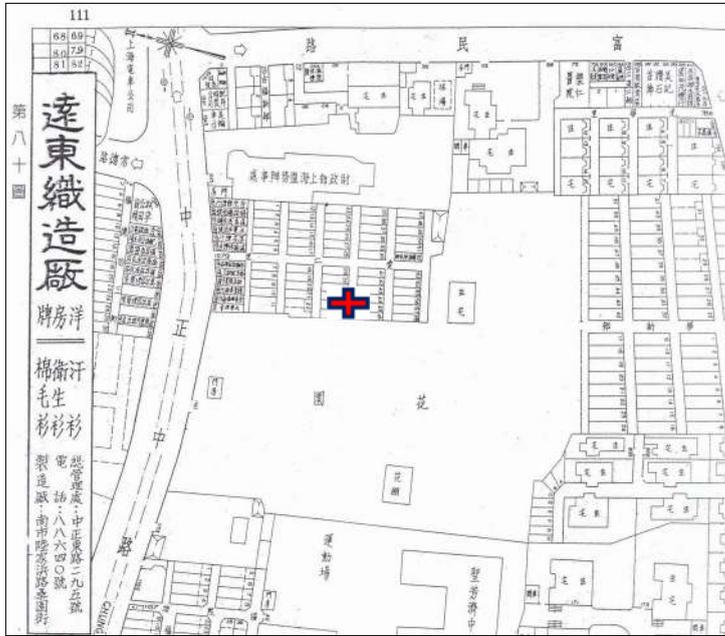


그림 1. 상하이 장빈루(長濱路) 아이런리(愛仁里) 39호(+) 표시는 아이런리 추정지)



그림 2. 대한적십자회 총사무소 옛터(현 大漁中國菜): 長濱路 愛仁里 39號(현 延安中路 1059號)

중국홍십자회(中國紅十字會)는 1904년 설립된 만국홍십자상하이지회(萬國紅十字上海支會)가 기원인데, 1907년 중국홍십자회는 중국홍십자회총의원과 의학당을 개설하였다. 중국홍십자회총의원은 1913년 미국 하버드대학이 5년간 위탁 경영했고, 1918년부터는 미국 안식일교회가 3년간 위탁경영했다. 이에 따라 안식일교회 출신인 김창세가 중국홍십

자회총의원에 파견된 것이다. 김창세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적십자회간호원양성소 교수로 활동할 때 중국홍십자총의원을 간호실습에 활용하기도 했다. 중국홍십자총의원 건물은 현재 푸단대학(復旦大學) 부속 화산의원(華山醫院) 안에 있다.

1920년대 초 중국홍십자회총의원은 병실을 크게 확충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1923년 9개동으로 확장했고, 1925년에는 3층 5개동 120병상 규모로 확장했다. 중국홍십자총의원은 1922년 X-선을 설치하였고, 1925년에 상수도 및 자가발전 전기시설을 갖추었다. 1930년대 초에는 310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¹⁸⁾



그림 3. 中國紅十字會總醫院(上海 法租界 迪華路 12號, 현 上海市 靜安區 烏魯木齊中路 12號)

18) 丁泽丽, 「近代中国红十字会公共卫生事业研究」, 苏州大学 博士論文, (2017), 67; 罗艳君, 「上海地方势力与中国红十字会 (1904-1949)」, 上海師範大學 博士論文, (2018), 84-86.



그림 4. 대한적십자회 간호원양성소 제1기 졸업사진(1920): 가운데줄 왼쪽부터 정영준, 곽병규, 김창세 교수와 앞줄 왼쪽부터 김연실, 김원경, 이경신, 이화숙, 오남희, 김순애, 이봉순, 김현숙, 이매리 등 졸업생¹⁹⁾

19)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 93-94; 「상해에 있는 대한인 적십자회」, 『신한민보』(1920. 4. 16.), 1면.

III. 의사독립운동가들의 개업의 활동

표 1. 192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한 의사들²⁰⁾

	성명	출신학교	병원명	주요 활동	공훈
1	김창세	세브란스연합의학교	中國紅十字會總醫院, 시후폐병요양원 상하이진료소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	건국포장 (2001)
2	곽병규	세브란스연합의학교	赤十字看護員養成所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	대통령표창 (2011)
3	정영준	세브란스연합의학교	高麗醫院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 임시의정원 의원	애족장(2014)
4	주현측	세브란스병원의학교	貳貳醫院	임시정부 교통국 요원 및 재무부 참사	애족장(1990)
5	신현창	세브란스연합의전	貳貳醫院, 海春醫院	임시의정원 의원	애국장(1990)
6	신창희	세브란스병원의학교	대한적십자회 상의원	임시정부 교통부 요원	애족장(2008)
7	이희경	시카고의대	대한적십자회 회장	임시의정원 의원	독립장(1968)
8	나창헌	경성의전	世雄醫院	임시의정원 의원	독립장(1963)

1. 삼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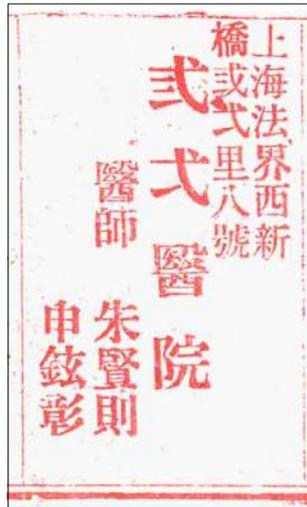


그림 5. 삼일의원 광고²¹⁾

20) 김광재, 「1920년 전후 상해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2015), 148 자료를 일부 활용한 것임.

21) 『독립신문』(1921. 3. 26.).

1911년 9월,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주현측(朱賢則: 1882-1942)은 105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후 2년간 옥고를 치렀고, 석방 후에는 고향인 평안북도 선천에서 활동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직후에는 안둥(安東)에서 교통국 요원으로 일했다. 일제의 체포망이 좁혀들자, 주현측은 상하이로 이동하였다. 상하이에서 그는 임시정부 평안북도 조사원(調查員)에 임명되었고, 임시정부 재무부 참사(參事)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회원으로 활약했다.

1921년, 주현측은 세브란스 후배인 신현창(1918년 졸업)과 함께 상하이 프랑스조계 서신교(西新橋) 삼일리(弍弍里)에서 삼일의원(弍弍醫院)을 개원했다. 삼일리에는 한국인들의 전용 교회당이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던 삼일당(弍弍堂)이 위치하고 있었다. 삼일리 인근은 한국인을 위한 진료활동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당시 주현측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 소집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삼일당은 국민대표회의 운동을 전개하던 중심지였다.

삼일당은 원래 1879년 미국 감리교회가 중국 기독교인을 위해 세운 교회였다. 교회 건물은 남아집에 따라, 1917년에는 중국인 소학교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미국인 교인이 건물 수리에 필요한 후원금을 제공하였고, 수리 후 1921년 4월부터는 한인들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삼일당은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노백린, 김규식, 김구, 여운형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장소였으며, 안창호, 심훈 등 민족지도자들의 강연 장소이기도 했다.²²⁾ 1927년 대세계 옆 삼일당 건물은 건축상에게 매매되었고, 1929년 삼일당 위치에 허중리(合衆里), 타이위안팡(太原坊)이라는 이름의 공동주택시설이 들어섰다.²³⁾

삼일당의 공식적인 주소는 Ningxing Street(寧興街) 262호이다.²⁴⁾ 당시 삼일당은 Xixin Road(西新橋) 삼일당, Baxian Road(八仙橋) 삼일당, Chaisi Street(采市街) 삼일당 등으로 불리웠는데, 현재 Ninghai Road(寧海東路)와 Wunnan Road(雲南南路)에 해당되는 곳이다. 1917년의 『상하이법국 구조계분도(上海法國舊租界分圖)』에서 삼일당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세계 옆 삼일당이 Chaisi Street와 Baxian Road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22) 金明洙, 『明水散文錄』(서울: 삼형문화, 1985), 77.

23) 김광재, 「상해 국민대표대회 개최지 三一堂 위치고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 132.

24) 國會圖書館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서울: 國會圖書館, 1976), 510.

25) 童世亨 編, 『上海法國舊租界分圖』(上海: 商務印書館, 1917); 王榮華 主編, 『上海大辭典』上·中·下(上海: 辭書出版社, 2007)의 부록으로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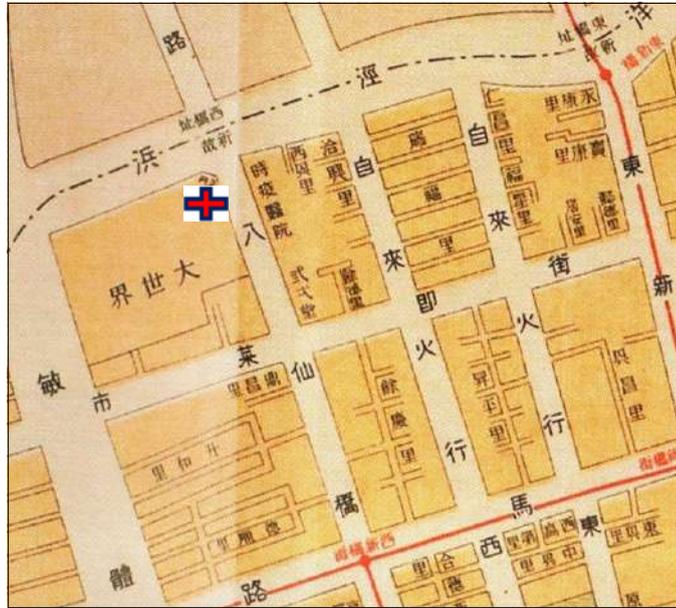


그림 6. 삼일당과 삼일의원: 시역의원 건너편에 모퉁이 인근에 삼일의원이 있었다(☒ 표시는 삼일의원 추정지).

삼일당 인근에 있었다는 삼일의원의 위치를 확정하고자 하면, 좀 더 자세한 지도가 필요한데, 1940년대 『상하이시행호로도록(上海市行號路圖錄)』을 통해 주소 지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의 바선차오 거리가 1940년대에는 윈난난루(雲南南路)에 해당 되는데, 1940년대 그 거리의 6호와 8호를 쉬야음식점[敘雅菜飯店]이 사용하고 있었다.²⁶⁾ 삼일의원은 주소는 『독립신문』 광고에 “上海 法界 西新橋 貳貳里 8號”라고 명시되어 있다. 차이스제와 바선차오에 위치하는 8호 건물은 시역의원(時疫醫院) 맞은편 대세계의 모퉁이 인근밖에 없다.

현재는 1897년 탕구루(塘沽路) 177번지에 설립되었던 서양식 레스토랑인 더다시찬서(德大西餐社)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 옛 지명은 모두 사라졌지만, 건물 뒤편으로 이곳이 삼일리 8호임을 알려주는 지번 주소(현 윈난난루 8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주변 상가들은 몇 개의 호수를 병합하여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1개호는 불과 2-3평 규모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다.

26) 承載·吳健熙 編選, 『老上海百業指南: 道路機構廠商住宅分布圖(增訂版)』(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6), 下冊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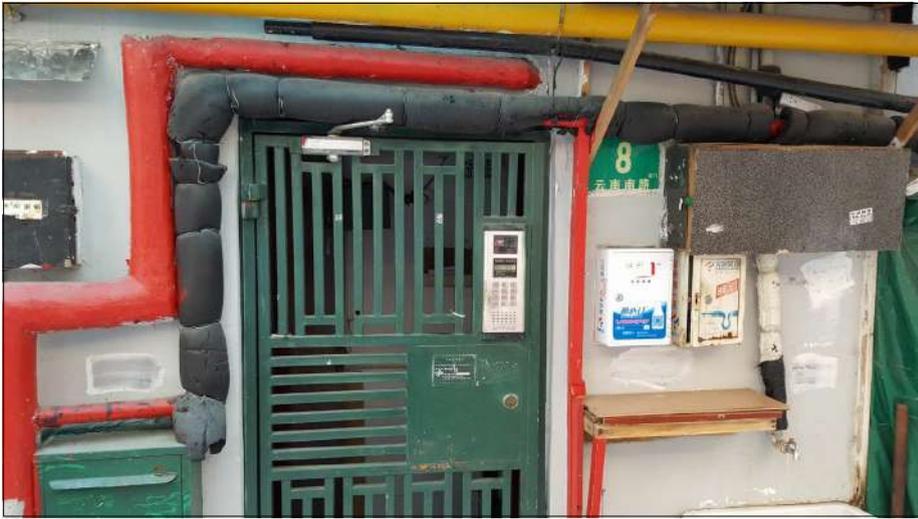


그림 7. 삼일의원 옛터(貳弍里 8號, 현 윈난난루 8호)



그림 8. 삼일의원 터: 삼일의원의 옛주소[프랑스조계 시신차오 싼이리 8호(法租界 西新橋 貳弍里 8號)는 사라졌지만, 지번(현 윈난난루 8호(雲南南路 8號))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이곳이 주현측과 신창희가 개원했던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2. 해춘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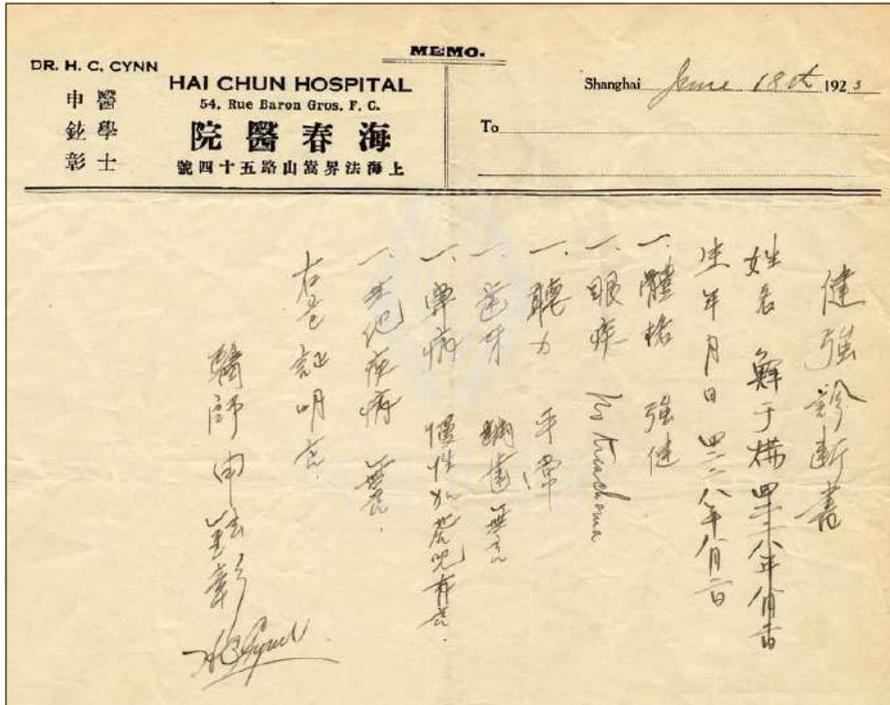


그림 9. 신현창의 해춘의원 진단서: 진단서 좌측 상단에서 해춘의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흥사단원 선우혁(鮮于熾)이 만성비염을 제외하면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건강진단서이다.

신현창(申鉉彰: 1892-1951)은 충남 논산 출생으로 1918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친형인 신현구(申鉉九)가 단장으로 있던 대한독립애국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9년 4월, 신현창은 신현구로부터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수행하게 된다. 신현창은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삼일당 인근에 주현측과 함께 삼일의원을 개원하고 독립자금을 모았다. 주현측이 흥사단 활동을 위한 텐진 등으로 떠나게 되면서, 삼일의원은 문을 닫았다. 이에 신현창은 프랑스조계에서 가장 번화한 샤페이루(霞飛路, 현 淮海中路)로 자리를 옮겨 새로 병원을 열었다. 해춘의원(海春醫院)이었다. 신현창은 1921년 임시의정원 충청도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 11월 25일에는 상하이에서 대한적십자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곳에서 신현창은 대한적십자회 상의원(常議員)에 뽑혀 활동하였다. 더욱이 그는 안창호의 흥사단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해춘의원을 통해서 흥사단원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신현창이 해춘의원 명의로 1922년 11월부터 1923년 3월까지 발급한 흥사단원의 건강진단서가 확인된다.²⁷⁾ 진단서상에 나타나 있는 해춘의원의 주소는 상하이 프랑조계 쑹산루 54호(上海 法界 嵩山路 54號)이다. 현재 쑹산로의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림 10. 신현창의 해춘의원 구지(嵩山路 54號)

3. 고려의원

정영준(鄭永俊: 1878-1923)은 경기도 개성 출신으로 1915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적십자회간호원양성소 교수로 활동했던 정영준은 사페이루(霞飛路) 220호에서 고려의원을 개원하였다.²⁸⁾ 사페이루 220호는 현재 화이하이중루(淮海中路)

27) 도산안창호선생 전집편찬위원회, 『島山安昌鎬全集』 7(서울: 島山安昌鎬先生紀念事業會, 2000), 325-337.

300호에 위치한 신스제다사(新世界大廈)에 해당된다. 정영준은 일제의 감시망 속에서 만주의 무장투쟁파로 분류되기도 했는데, 1922년 8월, 만주의 무장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1923년 정영준은 신병을 이유로 개성으로 갔다가 얼마 후 사망하였다.



그림 11. 정영준의 고려의원 옛터

28) 日本外務省, 「海外要注意 鮮人連名簿」, 218, 416(국가보훈처 수집자료); 김광재, 「1920년 전후 상해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134에서 재인용.

4. 시후폐병요양원 상하이진료소(西湖肺病療養院 上海診所)



그림 12. 김창세의 시후폐병요양원 상하이진료소 광고²⁹⁾

김창세(金昌世: 1893-1934)는 평안남도 용강 출신으로 1916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를 졸업하였다. 안식일교회 출신인 김창세는 1918년 안식일교회가 운영하는 상하이 중국홍십자회총의원(中國紅十字會總醫院)에 근무하였고, 1919년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적십자회간호부양성소 교수를 지냈다. 1920년 김창세는 도미하여 필라델피아 제퍼슨 의대와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수학하였고, 1925년 1월, 그는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25년 10월부터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세균학 및 위생학교실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나, 2년만에 사직하였다. 1927년 11월, 그는 상하이 중화위생교육회(中華衛生教育會) 성시위생부(城市衛生部) 주임으로 활동했다. 1928년 김창세는 프랑스조계 공동국(公董局) 위생과(衛生課)에 근무하였으며, 상당히 높은 수입을 보장받고 있었다.³⁰⁾ 그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위생국장으로서 위생행정을 주

29) 『申報』(1929. 7. 27.), 第20239号, (上海版).

30) 「上海不逞鮮人狀況(1928. 7.)」,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6, 53.

도하던 황쯔팡(黃子方)이나 후홍지(胡鴻基) 등과 『위생월간』 잡지의 편집에 참여하며 난징국민정부의 위생행정가들과 교류하고 있었다.³¹⁾ 그는 공동국에 재직하는 동안 *The China Medical Journal*에 상하이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상하이의 위생개혁을 주창하기도 했다. 김창세는 선진적인 조계당국의 위생행정이 이상적이라고 보지 않았고, 시정부의 위생행정도 낙관하지 않았다. 그는 상하이의 위생의료는 조계당국, 정부, 민간의 활동이 협력하게 될 때, 보다 나은 위생의료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보았다.³²⁾

1929년 8월 1일, 공동국에서 사직한 김창세는 자신의 집에 시후폐병요양원 상하이진료소(西湖肺病療養院 上海診所)를 개설했으며, 『신보(申報)』에 수차례에 개원 광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후폐병요양원 상하이진료소의 주소는 환룽루(環龍路) 샤페이팡(霞飛坊) 260호인데, 현재의 화하이중루(淮海中路) 927능弄에 위치한 화하이팡(淮海坊)이다. 샤페이팡은 1924년 미국선교회 보애당(普愛堂)이 도시빈민 2,000여명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자 3층 적벽돌 구조로 199채의 공동 주거지를 건축한 것이다. 따라서 각 가구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29년 8월, 김창세는 자신의 거주지인 이곳에 진료소를 차린 것인데, 현재는 학교부지에 편입되어 있다.



그림 13. 김창세의 시후폐병요양원 상하이진료소 옛터

31) 신규환, 「식민지 지식인의 초상」.

32) C. S. Kim, "A Brief Survey of the Public Health Activities in Shanghai", *The China Medical Journal* 42-7 (July 1928), pp.162-180.

5. 세웅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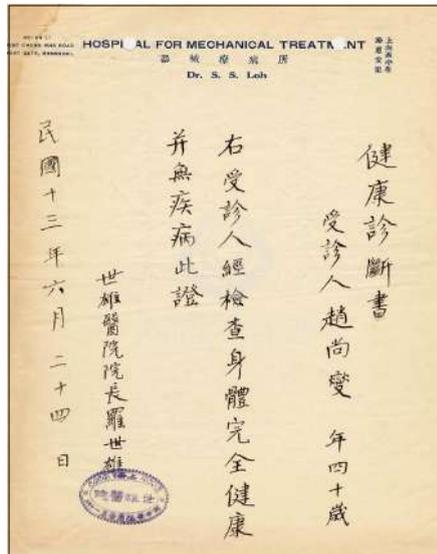


그림 14. 세웅의원 진단서

나창헌(羅昌憲: 1896-1936)은 평안북도 희천 출생으로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으며, 3·1운동에 참가하여 체포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 경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노병회, 흥사단 등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병인의용대 등을 조직하여 상하이 일본영사관 폭파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³³⁾ 나창헌의 자필 이력서와 진단서 등에 따르면, 그는 1922년부터 상하이에 세웅의원(世雄醫院)을 개원하였고, 주소지는 상하이(上海) 시중화루(西中華路) 후이안리(惠安里) 세웅의원으로 되어있다.³⁴⁾ 『신보』 광고에 따르면, 세웅의원은 생식기과전문의원이며, 위치는 상하이(上海) 시먼(西門) 중화루(中華路) 황자취루(黃家關路) 후이안리(惠安里)이다.³⁵⁾ 후이안리가 중화루와 황자취루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두 주소 모두 맞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후이더 아파트(惠德大廈)가 위치한 곳(上海市 黃浦區 老西門 黃家關路 65號)이다. 세웅의원은 프랑스조계 중싱가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는 위치였지만, 임시정부와는 매우 가까운 위치였다.

33) 장석흥, 「나창헌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4, (2002); 조철행, 『나창헌: 의열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서울: 역사공간, 2015).

34) 「나세웅 흥사단 이력서」, 『島山安昌浩全集-동우회II』 10(서울: 島山安昌浩先生紀念事業會, 2000), 738.

35) 『申報』(1924.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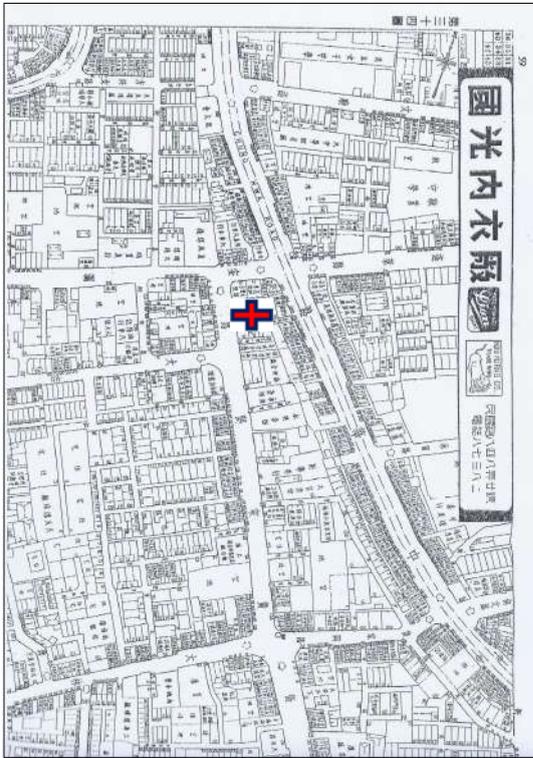


그림 15. 세웅의원 위치(+ 표시는 세웅의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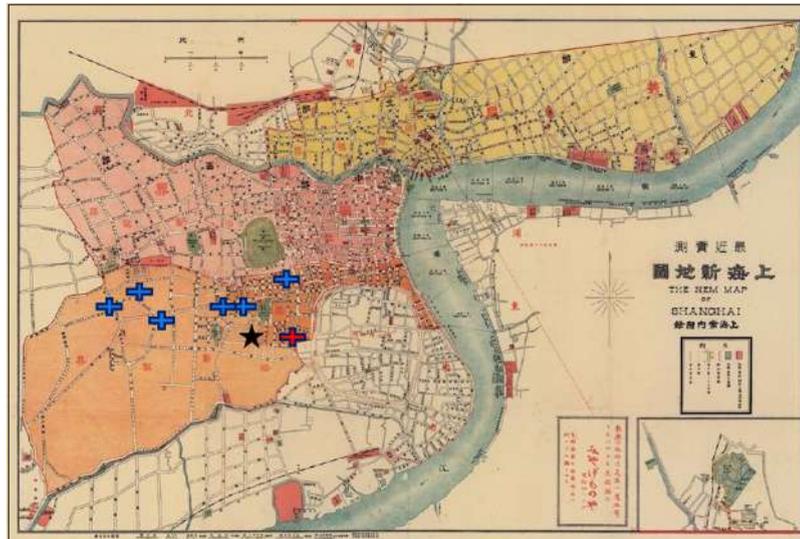


그림 16. 의사독립운동가들의 활동범위(★표시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IV. 맺음말

의사독립운동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의사면허를 가지고도 독립운동에만 전념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학도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업의 등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세브란스 출신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그들은 주로 한국인들 밀집 지역이나 프랑스 조계에서 가장 변화한 사뵈이루 인근에서 개업의 활동을 하였다. 아마도 변화가에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독립운동 자금 모금이나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창립이나 적십자간호원양성소 설립을 도왔던 김창세의 활동 배경은 주로 프랑스 조계 내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그것은 김창세가 임시정부 성립에 앞서 중국홍십자회총의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 및 근무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한적십자사와 적십자간호원양성소 등을 운영한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1920년대 후반 독립운동의 냉각기에 김창세는 상하이에서 위생운동가, 조계 위생관료, 민간활동가, 개업의 등 다양한 이력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나창현의 의원은 시내와 동떨어져 있었지만, 임시정부 청사와는 가까운 위치였다. 의사독립운동가들의 서로 다른 이력과 위치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1920년대 의사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배경과 장소성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활동 배경(임시정부 청사, 한인거주지, 변화가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20년대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의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X-선과 실험의학 등의 발전으로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었다. 한국인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식 장비와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제도시인 상하이에서 한국인들이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대형 종합병원은 없었고, 김창세 등이 근무했던 중국홍십자회총의원과 같은 종합병원이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켰을 것이다.

정영준의 고려의원, 신현창의 해춘의원, 나창현의 세옹의원 등은 모두 사라지고 현재는 고층건물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 반면 주현측·신현창의 삼일의원과 김창세의 시후폐병요양원 등은 구래의 건물과 호수가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개인의원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대개 그 병원들은 입원이나 수술은 불가능하고, 2-3평의 작은 사무공간으로 간단한 진료와 시술만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영세하고 열악한 의료상황 하에서 의사독립운동가들은 한인들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요구도 충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이국땅에서 독립운동과 개업의 활동을 병행해야 했던 의사독립운동가들이 병원의 대형화를 도모하거나 대형종합병원에 취직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프랑스 조계 내에서 가장 변화한 곳에 의원을 개설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핵심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사독립운동, 적십자간호원양성소, 삼일의원, 고려의원, 해춘의원

논문 투고일: 2019. 5. 9. 심사 완료일: 2019. 6. 5. 게재 확정일: 2019. 6. 18.

참고문헌

1. 자료

『申報』

『신한민보』

『독립신문』

The China Medical Journal

『上海市行號路圖錄』(上下冊, 1947-1949년); 承載·吳健熙 編選, 『老上海百業指南: 道路機構廠商住宅分布圖(增訂版)』(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6)

『증인李喜徹 신문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6, 中國地域獨立運動 裁判記錄 4,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 3: 高警 제1302 8호, 國外情報: 僭稱上海假政府 幹部의 黨派別」(1921. 5. 10.),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船津辰一郎(奉天總領事), 「機密公 第78號-機密受 第83號: 興京縣ニ於ケレ不逞鮮人情況ニ關スル件」(1924. 3. 20.),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岩村成允(鐵嶺領事), 「機密 第30號-機密受 第32號: 興京ニ於ケレ不逞鮮人情況ニ關スル件」(1924. 3. 15.),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菊池義郎(블라디보스토크 總領事),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7), 不逞鮮人 學生의 書面에 관한 건, 機密 제28호」(1919. 2. 21.);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日本外務省, 「海外要注意 鮮人連名簿」(국가보훈처 수집자료)

「上海不逞鮮人狀況(1928. 7.)」,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6

童世亨 編, 『上海法國舊租界分圖』(上海: 商務印書館, 1917); 王榮華 主編, 『上海大辭典』 上·中·下(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도산안창호선생 전집편찬위원회, 『島山安昌鎬全集』 7(서울: 島山安昌浩先生紀念事業會, 2000)

「나세웅 흥사단 이력서」, 『島山安昌浩全集-동우회II』 10(서울: 島山安昌浩先生紀念事業會, 2000)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國會圖書館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서울: 國會圖書館, 1976)

金明洙, 『明水散文錄』(서울: 삼형문화, 1985)

김광재, 「1920년 전후 상해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2015)

김광재, 「상해 국민대표대회 개최지 三一堂 위치고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

김성은, 「상해 임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여성과 역사』 29, (2018)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서울: 서울신문사, 1977)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의사학』 15-2, (2006. 12.)

박윤형·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곤, 「일제시기 한국 의사들의 독립운동」, 『의사학』 17-2, (2008. 12.)

신규환, 「상하이로 간 6인의 의사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21-1, (2018. 6.)

신규환, 「식민지 지식인의 초상: 김창세와 상하이 코스모폴리탄의 길」, 『문화와역사』 23, (2012. 5.)

장석흥, 「나창헌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24, (2002)

조철행, 『나창헌: 의열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서울: 역사공간, 2015)

Abstrac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nd Doctor's Independence Movement: A Study on the Location of Medical Activity Sites

Sihn Kyu-hwan *

Most of the doctors who served i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hereafter “KPGS”) provided nursing education based on their expertise or worked as a practitioner. Particularly notable were the activities of Severance graduates in the KPGS who mainly engaged in opening hospitals in areas where Koreans were concentrated or near Avenue Joffre (Shafeilu霞飛路), the main street in the French Concession. Perhaps opening a hospital on a busy street was advantageous for gathering information and carrying out fundraising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radius of Kim Chang-se’s activities, which helped establish the Korean Red Cross and the Korean Red Cross Nursing School, was mainly a residential area in the French Concession. The activities were deeply related to Kim Chang-se running the Korean Red Cross and Korean Red Cross Nursing School, not far from his residence and place of work, as he was serving as a member of the Chinese Red Cross General Hospital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PGS. Na Chang-heon was relatively distant from the city, but he was close to the KPGS.

In the 1920s, the medical environment was changing quick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Western medicine in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X-rays and experimental medicine. Various medical facilities, including general hospitals and individual clinics, were needed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Korean patients. But there were no large general hospitals run independently by South Koreans, so at general hospitals such as the

*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hinese Red Cross General Hospital, Kim Chang-se and others would have met the demand.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size of Jeong Young-jun's Goryeo Hospital, Cynn Hyun-chang's Haechun Hospital, and Na Chang-heon's Sewung Hospital because all of them have disappeared, and high-rise buildings are now located on the sites where they had been. On the other hand, we can estimate the size of Ju hyeon-cheuk and Cynn Hyun-chang's Samil Hospital and Kim Chang-se's Xihu Tuberculosis Clinic and the individual clinics of the time, as the old buildings and lakes remain intact. Usually, the hospitals were not allowed to hospitalize patients or perform operations, and only simple treatments and procedures were available in a small office space of around 7 to 10m². Under poor medical conditions, medical independence activists also had to meet the Korean people's demands for sanitation and health care. However, it was not easy for the independence activists, who had to engage in both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opening of their businesses in foreign lands, to seek a larger hospital or get a job at a large general hospital. The best they could do to support the independent movement was to open hospitals on the main street of the French Concession.

Key Words: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KPGS), Doctor's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Red Cross Nursing School, Sam-il Hospital, Goryeo Hospital, Haechun Hospital